

친근한 꽃중년…지금은 ‘아저씨 예능’ 르네상스

차태현 지진희 ‘저기가…’ 탐험 예능
정형돈 ‘뜯어 먹는…」서 농부로
‘나물 캐는 아저씨’ 정규편성 노력

‘아저씨’들의 예능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 과거 ‘개저씨’ ‘폰대’로 비하됐던 아저씨에 대한 이미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아저씨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아저씨’는 차태현과 지진희다. 두 사람은 6월1일 첫 방송하

는 KBS 2TV ‘저기가 어디데?’에서 배정남 조세호와 호흡을 맞춘다. 프로그램은 ‘1박2일’을 연출했던 유호진 PD의 신작으로, ‘탐험 중계’라는 장르를 표방한다.

지진희가 탐험대 대장을 맡고, 차태현 배정남 조세호가 대원 역할을 맡아, 오만의 아라비아 사막을 패딩 점퍼를 입고 탐험하는 등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간다. 독특한 설정과 함께 그동안 예능프로그램과 인연이 적었던 지진희가 얼마만큼의 적응력을 보여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연기활동하며 보여준 ‘꽃중년’의 세련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가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형돈은 농부로 변신해 시청자에 힐링을 전한다. 6월 방송하는 tvN ‘뜯어 먹는 소리’는 정형돈이 16세 농부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소소하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예능이다. 평소 심고 싶었던 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수확의 결실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자연스러운 웃음 유발’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공황장애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정형돈의 만남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앞서 안정환과 추성훈은 KBS 2TV 파일럿 ‘나물 캐는 아저씨’에서 부드러운

‘아저씨’의 매력을 뽐냈다. 각각 축구와 격투기 선수 출신인 두 사람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에서 채집한 나물로 한 끼를 만들어먹는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보여줬다. 이들의 반전 매력에 11일 종영한 프로그램은 정규편성을 노리고 있다.

KBS 예능국의 한 관계자는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난, 때로는 여성보다 더 여성적인 행동은 남녀노소 모든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젊은 층과 어우러지면서 ‘이해심 많은 중장년’이란 이미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고전중인 ‘뜻밖의 Q’ 시청률이 뜻밖이네

초호화 게스트 출연에도 느낌 산만
‘무도’ 후속작 불구 시청률 3~4%대

MBC 새 예능프로그램 ‘뜻밖의 Q’가 연재쯤 반등할 수 있을까.

‘무한도전’ 후속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뜻밖의 Q’는 이달 5일 첫 방송하고 19일 3회가 방송됐지만 시청률은 3~4%대에 머물러있다. 예상외의 부진에 방송가에서는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뜻밖의 Q’는 3회까지 소녀시대 씨녀, 트와이스 다현, 위너 송민호, 에이핑크 보미, 워너원 재환, 모모랜드 주이 등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대거 출연했다. 여기에 최근 방송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는 노사연까지 합류했다. 화려한 게스트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주기도 하지만, 산만함을 유발해 시청에 방해요소가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세대공감’을 모토로, 남녀노소 모두에 통할 수 있는 ‘퀴즈쇼’ 포맷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대부분 가수여서 퀴즈도 음악에 한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뜻밖의 Q’가 ‘무한도전’의 후속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오히려 시청률 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무한도전’에 열광했던 마니아 시청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큰 나머지 그 후속작에 대한 기대심을 아예 갖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출자인 최형호 PD와 진행자인 전현무·이수근도 프로그램 공개에 앞서 ‘무한도전’의 후속작이라는 점에 대해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뜻밖의 Q’가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포맷을 조금씩 그에 맞춰가다 보면 머지않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무한도전’ 역시 국민예능이 되기까지 상당한 ‘정착기간’을 보내야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트와이스 두번째 콘서트…1만 8000여명 팬들 열광



여성 9인조 트와이스가 5월18일부터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콘서트 ‘트와이스랜드 존 2 : 판타지 파크’를 열고, 모두 1만 8000명의 관객을 만났다.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돼 티켓전쟁이 치러졌던 이번 공연에서 트와이스는 3시간에 걸쳐 30여곡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정연 기자 anjjoy@donga.com 사진제공 | JYP엔터테인먼트

유작에서 인생 캐릭터 완성한 김주혁

영화 ‘독전’서 교활한 조선족 마약상
마지막 작품서 가장 개성 강한 연기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더욱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생전 미처 드러내지 못했던, 아직 감춘 것이 많아서 표현하지 못했던, 인생의 캐릭터는 많은 관객의 시선 속에 생생히 살아남아 배우로서 짧은 삶을 기억하게 할 듯하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독전’(감독 이해영·제작 용필름)은 조진웅, 류준열, 차승원, 김성령, 박해준 등 쟁쟁한 연기자들의 이름이 오르는 엔딩 크레딧에 “그리고”라

는 현사로 김주혁을 담았다. ‘독전’은 이들 속에서 함께 빛나는 배우 김주혁의 전례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 그러나 마지막 무대가 됐다.

‘독전’은 마약조직의 실체를 쫓는 형사와 마약조직으로부터 내쳐진 채 형사를 돕는 청년을 중심으로 각기 강렬한 색채를 지닌 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 그 가운데서 김주혁은 중국 마약시장의 거물 역을 맡아 생전 연기로 다양한 인물을 단박에 뛰어넘는 최고의 캐릭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주혁은 밀바다에서부터 자라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처세로 가장 잔혹하고, 또 가장 교활해진 악역

으로서 ‘독전’을 더욱 빛나게 한다.

‘독전’의 제작사 용필름 임승용 대표는 “오래 전 김주혁과 영화를 함께한다면 악역을 맡을 것으로 약속했다”고 돌아봤다. 임 대표는 김주혁이 악역 캐릭터를 돈보이게 하려 1시간 30분에 걸친 턱살의 분장을 견뎌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에게 처음 시나리오를 건넸을 때 당황스러워했지만 훌륭한 연기로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냈다”면서 “관객도 그의 생전에 만나보지 못한 매우 강렬한 캐릭터로서 김주혁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김주혁은 이로써 올해 ‘홍부:글로 세상을 바꾼 자’에 이어 ‘독전’을 유작으로 남기며 스크린에서 관객과 또 한 번 인사를 나누게 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킷



솔리드 왕팬 구하라

가수 구하라가 솔리드 콘서트를 관람하고 인증샷을 올렸다. ‘S’자가 새겨진 응원봉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귀엽다. 그 중에서도 흰색 티셔츠에 빨간 입술, 빨간색 손톱이 눈에 띈다. “노래에 취한다”는 말에서 솔리드의 감미로운 음색이 느껴지는 듯 하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구하리와 솔리드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구하라 #솔리드 #기념샷

김원겸의 음담잡담

가수협회 내홍 ‘누워서 침 뱉기’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홍국)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가수협회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미분배저작권 자금집행 건으로 본격 시작된 내홍이 김홍국 회장과 박일서 전 수석부회장과 갈등으로 더욱 격화된 양상이다. 두 사람은 상해죄 및 손괴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고, 협회 내부는 김홍국 지지자들, 박일서 지지자들, 양비론자들 등 여러 입장으로 나뉘면서 사분오열하고 있다.

어지러운 가수협회를 정상화시키겠다며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히려 내분을 키우고 있다. 10일 일부 원로가수들이 간담회를 열어, 협회 고문인 박일남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발족시켰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서도 참석했다. 하지만 김홍국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인 남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또 다른 비대위도 발족을 준비중이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누리꾼들 사이에 선 비판을 넘어 조롱까지 나온다.

“조기축구회인줄 알았는데 이권이 있나. 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수협회는 계모임인가, 아니면 이익집단인가. 협회 소속 가수들에게 해주는 건 무엇인가” 등 가수협회의 정체성을 향한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많다. 심지어 원로가수에 대한 폄하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한가수협회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다. 하지만 현재 협회는 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의 비판과 조롱이 자칫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대한 ‘혐오’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누워서 침 뱉기는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부 부장 gyummy@donga.com

연예뉴스 HOT 4

연예가중계, ‘일베’ 이미지 사용 논란

레드벨벳 조이,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이엘, 동료 김재욱 탈의 사진 올려 논란

나인뮤지스 손성아, DJ다큐와 결혼

KBS 2TV ‘연예가중계’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 이미지를 두 차례나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작진은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예가중계는 18일 ‘심야식당’ 코너에서 각종 프로그램에 일베 이미지가 삽입돼 논란이 있다는 현상을 전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제작진이 합성된 사례로 제시한 러시아 월드컵 로고 역시 일베가 교묘하게 바꾼 것이었다. 또 ‘연예가 핫클릭’ 코너에서도 연기자 이서원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한 일베 이미지를 삽입했다. 제작진은 “여러분의 지적과 호통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5월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4월18일부터 5월19일까지 실시한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조이가 참여지수 100만8194건, 미디어 지수 35만6339건, 소통지수 77만8868건, 커뮤니티지수 135만 5509건, 합계 349만 8910건으로 1위에 등극했다. 조이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를 통해 연기자로 입지를 굳히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위는 에이핑크의 김남주, 3위는 여자친구의 신비가 차지했다. 신비 외에도 은하, 엄지, 예린, 소원 등이 나란히 4~7위까지 나란히 차지해 ‘대세’로 오른 여자친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배우 이엘이 동료 배우 김재욱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질타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사진이 공개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고, 이엘 측은 “뮤지컬 ‘아마데우스’ 공연장 대기실에서 김재욱을 촬영해 엽기적인 사진이라 생각해서 재미삼아 올렸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엘 측은 해명에도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열애설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엘의 도가 지나친 행위에 “경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두 사람은 각자 주연한 드라마 촬영장에 ‘간식차’를 보내는 등 평소 남다른 우정을 자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걸그룹 나인뮤지스의 멤버 손성아(29)가 20일 9살 연상 DJ다큐(윤문수)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테케이호텔에서 양가 가족과 친척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디제잉이라는 공통점으로 사랑을 키워왔다. 손성아는 앞서 팬카페를 통해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성아는 2004년 영화 ‘여고생 시집가기’, 2010년 드라마 ‘도망자 플랜B’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13년 나인뮤지스에 합류해 가수로 활동했다. DJ다큐는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